

통로·계단은 화재 등 비상시 피난공간...물건 적치 안돼

식막한 아파트 문화 공동체 정신 살리자

자전거·쓰레기 적치물 갈등 연속·소음 등 반려동물 민원도 지속...양보·배려 필요해

<하>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 중에서 반려동물과 아파트 통로 적치물 문제 만큼 고질적인 것도 없다.

서너 가구 걸려 한 집씩 반려동물을 키우는 탓에 심야시간대 짙는 소리는 단골 민원 사항이고, 복도나 계단에 쌓아놓은 적치물은 보기 흉할 뿐만 아니라 화재시 또다른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야외 활동이 감소하면서 계단 운동을 하는 시민들이 늘면서 계단 적치물은 이웃 갈등을 빚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30일 동물단체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16만 2752가구, 광주시 전체 가구수(61만 6485가구)의 26.4%를 차지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을 둘러싼 이웃 간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 광주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민원만 하더라도 2019년 61건→2020년 26건, 올 6월까지 34건으로 여전하다.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민원은 개 짖음, 고양이 울음소리 등 소음 문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은 다름으로써까지 변신한다. 광주에서는 최근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해 자신의 이웃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더 불어 지난 한해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도 184건이나 된다.

조경(사)가치보듬대표는 "반려동물은 소리를 낼 수 밖에 없는 존재로 이웃에게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주고있다면 견주가 공동주택을 떠나야 하는 게 맞다"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입주자가 반려동물을 기르려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

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미 오래전 무의미해졌다. 견주들은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을 버릴 수 없어 차악(次惡)으로 상대수술을 결정하기도 한다. 자신이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소방서에 접수된 불법적치물 관련 민원과 불법적치물로 인한 이웃 갈등도 증가 추세다. 공동주택 복도와 계단은 화재발생시 피난시설로 이용되는데, 이곳에 살림살이나 자전거, 쓰레기 등을 방치하는 주민들 때문이다.

소방법에 따르면 피난시설(복도, 계단 포함)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김은지(여·37)씨는 "5층에 사는 탓에 운동 겸해서 엘리베이터 대신 자주 계단을 이용하는데 아래층 집주인이 애플 키보드 2대와 대형 유모차 1대

등 여러가지 물건을 계단에 내놓아 걸리적 거린다"면서 "관리사무소에서 화재시에도 문제가 되니 치워달라는 안내문을 붙여도 말을 듣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피난시설에 불법 적치물을 치워달라는 민원전화는 2019년 10건에서 2020년 23건, 올 6월까지 28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면서 불법적치물 관련 민원전화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광주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관계자는 "결국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중재자를 발굴해 교육하고 누군가에게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끝>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시 서구 차평동 한 아파트 입구에 붙은 '슬기로운 공동주택 생활'을 위한 안내문.

5·18 사적지가 보내는 'SOS'

기념재단·목요사진 전시회...5~20일 5·18기념문화센터

5·18기념재단과 '목요사진'은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5·18기획전시 'SOS 풍경 IV' 사진전을 5·18기념문화센터 지하1층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SOS 풍경 IV' 사진전은 목요사진 소속 4인의 작가(김형주, 권석기, 엄수경, 임성국)가 5·18사적지를 각자 시각으로 재해석한 60여 점의 사진으로 구성됐다.

이번 전시는 작가들이 5·18 흔적 중 505보안부대 옛터, 구 광주국군통합병원, 옛 광주교도소를 7년간 기록한 전시이다. 작가들은 5·18 피해자들의 진솔과 기억을 더듬어가며 그들의 시각으로 집단

기억을 소환했다. 이 기억은 기존 역사가 기술하지 못하는 진실을 집단 표상으로 나타냈다. 사진 속 교도소의 모습은 자체를 드러내기보다 은유적으로 표현됐다. 수십 년이 지나도 그대로인 교도소 담장과 이를 뒤덮고 있는 칙렁클은 이러한 집단 표상을 은유적 표현으로 나타낸 것이다.

목요사진은 "카메라를 통해 역사의 흔적과 한 조각 빛을 찾아낸 작업의 결과물"이며 "그곳에서 보내오는 SOS에 응답해 잊혀져가는 기억을 재조명하고, 공감을 얻고 소통함으로써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은행 악취 걱정마세요 지난 30일 광주시 북구 중외공원 산책로에 바닥에 떨어져 악취를 풍기는 은행열매를 수집하기 위한 수집망이 설치되어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반려견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광주시, 11~29일

광주시는 가을철을 맞아 10월11일부터 29일까지 관내 지정 동물 병원 93개소에서 반려견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접종 대상은 관내 생후 3개월 이상의 동물등록제에 등록된 반려견이며, 접종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이 기간에는 집에서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기존 2만원 내외의 접종비 대신 5000원만 지불하고 예방 접종을 하면 된다.

광주시는 올해 봄철에 반려견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데 이어 가을철에도 4200두 분량의 광견병 예방백신을 지정 동물 병원에 공급했다. 접종 가능 동물병원 현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120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현역병 입영 본인 선택원 접수

광주전남병무청 오늘부터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2022년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을 1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2022년에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올해 현역판정을 받은 2002년생, 재학생 입영연기 및 국외입영연기 중인 자이다. 입영 희망 일자는 본인이 직접 선택하고, 선택 즉시 입영부대는 전산으로 자동 결정된다.

신청 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병무청 앱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다음년도)' 메뉴에서 다음 해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된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은 연 3회 접수하고 있으며, 이번이 2회차 접수로 3회차는 대학 수험능력 시험일 이후인 오는 12월 8일 접수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총장로4·5가 빈집 활용 청년창업 '박차'

10개 팀 매칭 완료...창업지원금 지원·상권 활성화 기대

빈 집을 활용해 청년들의 창업을 돕는 '청년창업 사업'이 매칭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30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 29일 '총장로4·5가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에 참여할 청년 창업자 및 빈집 소유주와 약정식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총장로4·5가 일대 빈집이나

빈 점포를 활용, 마을과 상생할 수 있는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날 동구는 창업에 대한 열정과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 10팀(1차 5팀, 2차 3팀, 3차 2팀)을 선발했으며 지난 29일 창업 아이템과 부합한

빈집·빈점포 매칭 절차를 마친 청년 창업자와 빈집 소유주 2팀에 대한 3차 약정식을 가졌다.

선정된 청년창업자는 ▲창업 공간 조성비 ▲임차료 ▲재료비·상품개발비 등 초기 창업자금으로 최대 1375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또 맞춤형 교육·컨설팅, 홍보 마케팅, 금융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지원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청년들의 야무진 꿈이 지역 안에서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이 찾아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

손해보험협회